동체 · 자비 · 희망의 불을 밝히자

處處가 극락정토요 物物이 화장세계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마야부인 태중(胎中)에서 출태(出胎)하시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한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또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만이 홀로 높음이로다. 장하고 장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시여! 합장예배를 올립시다. 그러나 자세히 점검컨대 다리아래 삼척이로다.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에 출현하심을 찬탄(讚嘆)하는 축제를 여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부처님의 차별 없는 자비(慈悲)로 일체중생을 교화(敎化)하니 지옥문도 사라지고 유정(有情)들도 무정들도 법열(法悅)로 가득하니, 시시(時時)로 좋은 날이고, 일일(日日)이 행복한 날입니다. 모든 불자(佛子)들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사바(娑婆)에 나투심에 환희찬탄하며 기도합시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동체(同體)의 등(燈)을 켜고, 내 가족만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慈悲)의 등(燈)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希望)의 등(燈)을 켭시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사바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나를 위해 광명이 되고, 이 사회의 등불이 됩시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질은 풍족하지만 더불어 가치전도(價値顚倒)를 낳았습니다. 물질우선의 가치관으로 갈등과 경쟁은 심화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지만 누구도 이 아픔을 보듬고 위무(慰撫)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한과 보복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는 어떤 무력이나 현란(絢爛)한 정치나 어느 한 이념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개개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자성(自性)을 밝혀야 합니다.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원래 옳고 그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인 마음은 찾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현상(現象)을 좇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육신(肉身)은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이 없어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하면 처처(處處)가 극락정토요, 물물(物物)이 화장세계이니 자연히 대자유와 대안락과 대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 그리고 온 인류가 참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마음에 자성의 燈 켜자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심인(心印)은 나에게 있는 부처님입니다. 깨달아서 실천(實踐)해야 하는 진리(眞理)입니다. 심인진리(心印眞理)로 자성(自性)을 밝히고 허물을 깨쳐서 고치면 원하는 바를 성취(成就)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안으로 나에게 있는 자성법신(自性法身)과 밖으로 삼계(三界)에 두루 차 있는 법계법신(法界法身)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마음에 자성(自性)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奉祝)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폅시다.

심인(心印)을 분명히 알아서 생활(生活) 중에 깨닫고 참회(懺悔)하며 실천(實踐)하는 진각(眞覺)을 이룹시다.

백만원력 모여 백만연등 밝히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일곱 걸음 걸으시니 발끝마다 연꽃이 피어납니다. 낮에 핀 땅위의 칠연화(七蓮花)는 밤이 되니 하늘의 일곱연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곱은 일천이 되고 일천은 다시 일만이 되더니, 어느덧 백만연등이 되었습니다. 한 등불이 다른 등불로 이어져 백만등불이 되어도 그 밝음은 차별이 없기에, 백만등불은 백만억 국토와 천만억 중생을 밝힙니다.

백만등불은 남북을 나누는 그늘을 밝혀 천년고도 서울에서 천하제일 금강산과 고려수도 개성을 오가는 길을 비추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심으로 좌우와 상하로 편을 가르는 진영주의자들의 자기속임이라는 무명(無明)까지 밝혀줍니다.

또 그 등불은 주변국의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성냄, 그리고 진실을 등지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의 탁류를 향해 일시에 아홉 마리의 용으로 변하여, 맑은 물을 뿜어 사해(四海)를 공생(共生)토록 합니다.

화쟁(和諍)이라는 장명등(長明燈)을 마당에 켜놓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온 우리 민족은 오천년동안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천칠백년동안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어 고해(苦海)를 건넜습니다.

삶이 힘들고 험난할 때마다 일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니, 이제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화합(和合)이라는 백만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화합은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함을 만드는 출발점이요, 종착점입니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 는 탄생게(誕生偈)를 함께 부르며,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편안함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정진하면서 백만원력(百萬願力)이라는 등불로 우리 국토를 환하게 밝힙시다.

우리도 한마음으로 사바예토(娑婆穢土)를 극락정토로 바꾸기 위해 언제나 이 자리에서 원력을 멈추지 않고 정진할 것을 삼보전에 서원하며 발원드립니다.

정토사회 구현은 불교도 목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부처님은 항상 우주법계에 편만해 계십니다. 우리 중생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만 이 사바에 머무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석존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석존께서 이 사바예토에 오신 이유는 중생계의 미혹과 무명을 타파하여 지혜광명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의 생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단하게 세상에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로 정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종교적 열정을 베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도 국가와 국민이 전제된 뒤에 평안하게 그 종교적 목적과 방편을 구사하여 정토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불교를 위시한 모든 종교는 한민족의 하나 됨에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서 협력하고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서 사회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신명나도록 염불기도 정진하여 지혜광명의 연등을 밝혀 온 누리에 두루 하도록 발원합시다.

삼악도 끊는 불퇴전 서원을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해의 파도 속에 보리의 길이 있고 억겁 윤회의 고통이 열반의 실상임을 알리는 것이었으니,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날이요, 곳곳에 연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밝히는 찬란한 연등은 시대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이요, 우리가 세우는 불퇴전의 서원은 억조창생의 삼악도를 끊어 버리는 대자대비의 행원입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말로만 불자이고 행실은 비불자인 이중적 삶을 청산하고, 살아 있는 매순간 철저히 부처의 말과 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두물물이 진리의 실상임을 가르치셨건만, 정작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아파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지 자기 삶을 살펴볼 때입니다.

일체중생이 남김없이 열반에 이르도록 부처님 무량가피가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안으로 자비, 밖으로 지혜 발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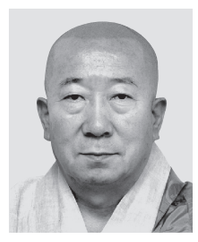
마음자리는 자비로 밝히고 행복은 지혜로 열어갑시다. 가정도는 효순으로 지키며 세상은 평화로 채워갑시다. 오늘은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거룩하고 좋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며, 나날이 좋은 날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불자들이 불기 2563년에 세우는 이 서원은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마음가득 사랑을 담아 자비행을 실천하고, 세상만물을 사랑하는 염원으로 인류평화를 이루자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사회, 국가, 인류가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입니다.

행복은 안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밖으로 지혜를 발현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평화가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동력 삼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정착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자유 얻어 평화를 누리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니다.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며, 일체가 개고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없고 그러한 곳에는 자아가 없어 변화하니 괴로움만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이거다' 라고 정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사가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부처님 말씀에 철없던 시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채우려 했으나 채우지 못했고, 비우려 했으나 비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깨닫고 나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라도 자유로우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자유를 얻게 되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의 탄신을 어찌 봉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탄신을 받들어 축하합시다.

차별 없는 평등세계 是非 말고 화합하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치는 굉음이 천지를 진동할 제, 아기 부처님은 이 사바예토에 하강하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 이라고 대갈일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고귀함과 우주만유에 진여불성의 여여 하심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금구사자후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7보를 행했다함은 45년간 주유천하하면서 전법포교를 미리 상징한 것이며, 석존께서는 탄강하시면서 보여주신 이적을 일평생 그대로 실천하고 반열반에 드셨지만, 법신은 상주 불멸하여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 45년간의 행화는 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 평등 무차별주의였습니다. 우리 불문은 차별이 없는 평등세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하늘의 태양처럼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만물을 평등하게 길러내는 대자대비의 무량한 법신불이십니다.

하늘에 태양이 항상 떠 있듯이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미혹한 중생들의 눈에는 근기 따라 보일 뿐입니다. 4.8 부처님오신날은 일체중생이 봉축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어둠은 쫓아내고 밝음은 맞이하는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에 일체중생이 다 지혜광명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깨닫는 복덕을 지읍시다.

누리에 울린 부처님 사자후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자신이 만든 그림자를 좇아 맴도는 안타까운 세월이라. 지금 내 앞의 사람과 일과 물건에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야 하리.

강물에 뜬 달을 건지려 헤매지 말고 먼저 허망한 생각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으니 지혜가 드러나는구나.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자비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투심이라.

생명의 등불이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꽃등 그늘 아래 조용히 합장하고 누리에 울리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듣네.

진실하고 주체적인 삶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참으로 거룩하고 기쁜 날입니다. 아기부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자 이 땅, 사바세계에 나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며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신 후 오른 손은 하늘을 향해 지켜들고, 왼 손은 아래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라고 외치셨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일성(一聲)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게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나아가 일체가 모두 존귀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타의 정신이 요구되는 이유이며 일체가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은 자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영위해나가야 합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의 가르침입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이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육근(六根) 속에 있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삼업이 청정한 가운데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진리로 들어가는 문(門)이요,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도(道)라 할 수 있습니다.